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제 정 2006. 2. 23.

개 정 2014. 2. 19.

개 정 2023. 2. 28.

우리 간호사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킴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녕 추구를 간호 전문직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인간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 의과학 기술을 포함한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 의료 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4년 제53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3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

- ❖ 일시 : 2024. 5. 21. (화) 14:00
- ❖ 장소 : 마산대학교 50주년 기념관 3층 대강당
- ❖ 사회 : 하영미 경상남도간호사회 교육위원장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식 (하영미 경상남도간호사회 교육위원장) 인사말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14:10 - 15:10	특강 :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손쉬운 문헌고찰과 IRB 작성 (조은희 군산간호대학교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50	논문 발표 (3편)
15:50 - 16:30	질의응답 및 총평, 수상 논문 발표
16:30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발표논문

연번	구분	제목	발표자 및 기관명
1	양적연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단일기관 연구]	여정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	양적연구	근골격계 통증 동반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탄력밴드 적용 복합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3	질적연구	혼종모형을 이용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분석	이경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국문초록)과 자료집은 행사 종료 후 홈페이지 정보광장란-자료실에 게재 예정

차 례

■ 제33회 학술발표회 개회사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5
■ 자료집 발간사 (하영미 경상남도간호사회 교육위원장)	7
■ 특별 강연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손쉬운 문헌고찰과 IRB 작성 (조은희 군산간호대학교 교수)	11
■ 발표논문 (국문초록)	
1.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단일기관 연구] (여정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5
2. 근골격계 통증 동반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탄력밴드 적용 복합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27
3. 혼종모형을 이용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분석 (이경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28
■ 박사 학위 논문 (국문초록)	
1.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동 맞춤형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박가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31
■ 석사 학위 논문 (국문초록)	
1.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강소영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35
2. 긍정 간호조직문화, 돌봄-배려행위와 간호의 질의 관계에서 병원조직건강의 매개효과 (구보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36
3. 신규간호사의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 공감역량이 임종간호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리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7
4. 심장질환자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혜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8
5.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 비교 연구 (문은정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39
6. 임상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잡 크래프팅을 중심으로 (민지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0
7.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박미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41
8.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미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2
9.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민형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3
10. 중환자실 간호사의 강인성,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박보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44

11.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백미경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45
12. 상급종합병원 MZ세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보상만족, 신뢰성, 조직신뢰, 조직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주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6
13.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과 외로움 극복 경험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적용 (성민경 동탄제일병원)	47
14.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와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신수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8
15. 신생아중환자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면회 프로그램 적용 효과 (유남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49
16.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수면의 질과 배우자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슬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0
17. PCA 블렌디드 교육이 하지골절 수술환자의 통증, 통증조절 만족도, 지식 및 사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이세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1
18. 뇌졸중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와 영향요인: 이단계 군집분석 활용 (이효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52
19.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열의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임선미 창원the큰병원) ...	53
20. 노인전문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환자중심간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연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4
21.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이 근거기반 실무역량에 미치는 영향 (임윤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55
22.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측정된 수면의 질과 신체활동이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미의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56
23. 기혼여성 간호사의 일-가정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 (정민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57
24. 수술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전문직 정체성, 긍정심리자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은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8
25.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역량과 윤리적 간호역량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민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59
26.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 프로그램이 입원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율신경활성도,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조은주 중앙메디컬병원)	60
27. 신규간호사의 그릿, 사회적지지와 재직의도 관계에서 전환충격의 매개효과 (지혜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61
28.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명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62
29. 신규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임상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승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63
30.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도와 수행 경험 (허성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64
31. 임상간호사의 조직침묵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에 의해 조절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황신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65
32. 요양병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예방관리실무 현황 (황혜진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66

개 회 사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개하고, 자연이 활기찬 녹색으로 물들어 계절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5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나이팅게일의 탄생을 기념하고, 간호사들의 사회공헌을 기리는 국제간호사의 날이 올해로 53회를 맞이하게 되어 이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간호사들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제33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힘든 여정으로 9월에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5월 12일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점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 학술발표회에서는 간호사들의 연구논문 발표와 함께, 간호사들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 II」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Chat GPT에 대한 윤리적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에도 동일하게 3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 III」을 제작하였으며 간호사들의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문헌고찰 방법과 IRB 작성 등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학술발표회 시간을 통해 얻은 연구 지식이 참석자 여러분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이를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의 의료현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문제점 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간 지속화 되고 있어 환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간호 영역에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양성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4차로 발의된 간호법이 5월 말로 예정된 21대 국회 회기 동안에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듯 간호사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학술발표회 지원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간호역량개발사업, 학술발표회 개최, ICN 참가, 논문 투고비 및 게재비 지원 등이 있으며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과 운영, 간호대학과 병원간의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질 향상 세미나, 영양병원 · 중소병원 워크숍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33회 학술발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위논문 자료집 출간 비용을 지원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특강을 위해 이룬 시간부터 먼 길을 마다않고 강의를 수락해 주신 조은희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하영미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논문을 준비하신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남정자

발 간 사



존경하는 경상남도 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학술발표회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33회 학술발표회는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실무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3편의 논문 발표와 귀중한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간호현장에서 임상질문을 찾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최신 연구결과와 임상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간호실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1년간 실무연구를 수행하시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 학술발표회에 참여해주신 3분의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남간호사회에서는 간호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간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실무연구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회원님들을 위해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손쉬운 문헌고찰과 IRB 작성’이라는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주제강연을 통하여 임상실무에서 궁금했던 주제를 간호연구 질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헌고찰 방법과 인간대상연구의 IRB 작성에 대한 회원님들의 이해도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남간호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소중한 성과인 석박사 학위논문을 2022년부터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하여 1만 5,000여명의 경남간호사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번째 자료집에서는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를 위해서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들이 지난 1년간 작성한 석박사 학위논문 33편을 담았습니다. 간호학문은 간호실무가 직접 수행되고 있는 병원, 보건소, 사업장 등 실제 간호실무현장에 기반을 둔 지식들이 논문의 형태로 구현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간호학적 근거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33편의 귀한 연구결과들이 후속연구를 수행할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다양한 실무현장에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간호연구를 수행하고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성과를 공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술발표회와 자료집을 통해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갈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상남도간호사회 남정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남도간호사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술발표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직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술발표회를 기획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경상남도간호사회 교육위원장 하영미

특별 강연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손쉬운 문헌고찰과 IRB 작성

조은희 군산간호대학교 교수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손쉬운 문헌고찰과 IRB 작성

군산간호대학교 조은희

2024. 5. 21(화)

CONTENTS

I. 문헌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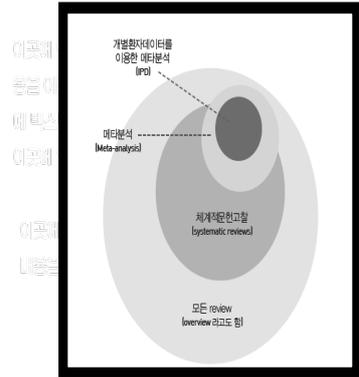
II. 연구주제선정

III. IRB 작성

I. 문헌고찰 (Reviews) 구분

문헌고찰 구분

-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연구방법
 -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헌검색과 사전에 정해진 포함/배제기준에 따른 문헌선택,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비뚤림위험 평가 등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과정임
- ❖ 비뚤림(체계적 오류) 위험
 -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
 - 체계적 오류로 결과나 추정에 있어 참값으로부터 벗어남
- 비체계적 문헌고찰(narrative review)
 - 문헌 검색에 따른 연구선정
 - 문헌검색, 포함/배제 기준에 따른 연구선정, 비뚤림 위험 평가, 연구합성등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음



1

I. 문헌고찰 (Reviews) 이란

- 연구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여 요약하는 과정
- 연구문제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 등을 검토하는 과정
- 연구문제에 폭넓고 광범위하게 시작하여 연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처로 좁혀져 깊이 있게 확인

이곳에
중요한
메타분석
이곳에
이곳에
내용을

이곳에
중요한
메타분석
이곳에
이곳에
내용을

이곳에
중요한
메타분석
이곳에
이곳에
내용을

1

I. 문헌고찰 (Reviews) 범위

문헌고찰 범위 : 주제와의 관련성, 최근 발표 문헌

- 연구문제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 이미 연구된 연구문제는 무엇인지?
- 연구문제에 적용시킬 이론적 기틀은 무엇인지?
- 연구문제에 대한 수행가능성, 연구도구,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연구결과는?
- 대상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피
붙을 이곳에 입력하세요. 이곳
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이곳에 입력하세요.
내용을 이곳에 입력하세요.

1

I. 문헌고찰 (Reviews) 기술

구분	문헌고찰 기술
1차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연구보고서)의 전문을 직접 인용 • 원저자가 발표한 논문이나 보고서
2차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논문(연구보고서)에서 인용 • 원저자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점으로 전개한 문헌

1

I. 문헌고찰 (Reviews) 작성

주요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SH(Medical subject Heading)용어만 사용 https://www.ncbi.nlm.nih.gov/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 투고할 학회지 투고규정을 확인하여 투고양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A style : 저자명(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시작페이지-마지막페이지 Vancouver style :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 시작페이지-마지막페이지
EndNote (서지관리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들의 제목, 출판연도, 저자, 초록 등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I. 문헌고찰 (Reviews) 검색(국내DB)

검색전략(국내) : 핵심질문에 맞추어 검색어, 검색할 데이터베이스 확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index.do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 국회도서관	https://dl.nanet.go.kr/
• 코리아메드	https://koreamed.org/
•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	https://kmbase.medic.or.kr/
• 의학연구정보센터	https://www.medic.or.kr/
• NDSL	https://scienceon.kisti.re.kr/
• 구글학술	https://scholar.google.co.kr/
• DBpia	https://www.dbpia.co.kr/
• Kiss	https://kiss.kstudy.com/
• NRIC(간호학연구정보센터)	https://nursing.medic.or.kr/

1

I. 문헌고찰 (Reviews) 검색(국외DB)

검색전략(국내) : 핵심질문에 맞추어 검색어, 검색할 데이터베이스 확인

• Ovid-MEDLINE	http://ovid.tx.ovid.com/
• EMBASE	https://www.embase.com/ (Open Access Data Base 아님 : 바로 검색 불가능)
• PubMed	https://pubmed.ncbi.nlm.nih.gov/
• The Cochrane library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 CINAHL	https://www.ebsco.com/products/researchdatabases/cinahl-database
• psycInfo	https://www.apa.org/pubs/databases/psycinfo

1

II. 연구주제 선정

❖ 연구자가 다루고 보고 싶은 키워드 3-5개 설정

- 시기 :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분석(연도별)
- 주제 : 연구의 세부 주제 구분 및 변수 확인
- 연구방법: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 에서 택한 연구방법론 확인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비
공용 여기에 입력하여주세요. 이곳
여기에 검색어(키워드)로

❖ 종합 :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및 변수, 연구방법론 확인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1

II. 연구주제 선정

연구방법

1. 실험연구(유사실험, 순수실험)

2. 조사연구(단순통계방법 활용, 고급통계방법 활용)

3. 이론개발

4. 질적연구

5. 주제범위, 체계적 문헌고찰 등

6. 질적연구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비
슷한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이곳
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내용은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III. IRB 기관

기관 IRB : <https://www.e-irb.com:3443/>

The screenshot shows the e-IRB website interface with a search bar and a table of IRB institutions. The table is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지역별 보기' (View by Region), '지도로 보기' (View by Map), and '기관 검색하기' (Search Institution). The '지역별 보기' column lists institutions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Incheon, Gyeonggi, Gwangju, Daejeon, Jeonju, Jeonnam, Jeonbuk, Jeollanam, Jeollabuk, and Jeju. Each region lists several specific IRB institutions.

이곳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내용은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 <https://irb.or.kr/>

공공위원회 e-IRB

로그인 회원가입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정보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협약 안내

협약대상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심의 안내

심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바로가기 →

조직 및 연락처

업무담당자별 연락처를 안내해드립니다.

바로가기 →

청년재생의료 특별위원회

청년재생의료 특별위원회를 안내해드립니다.

바로가기 →

심의일정

[2024-05-07] 2024년 27차 심의위원회 [제1위원회]

[2024-05-09] 2024년 28차 심의위원회 [제2위원회]

[2024-05-16] 2024년 29차 심의위원회 [제3특별심사위원회]

[2024-05-21] 2024년 30차 심의위원회 [제4위원회]

[2024-05-22] 2024년 31차 심의위원회 [제3위원회]

교육안내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연구를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학습시간 : 총 5 강 [183분]

공공위원회 e-IRB System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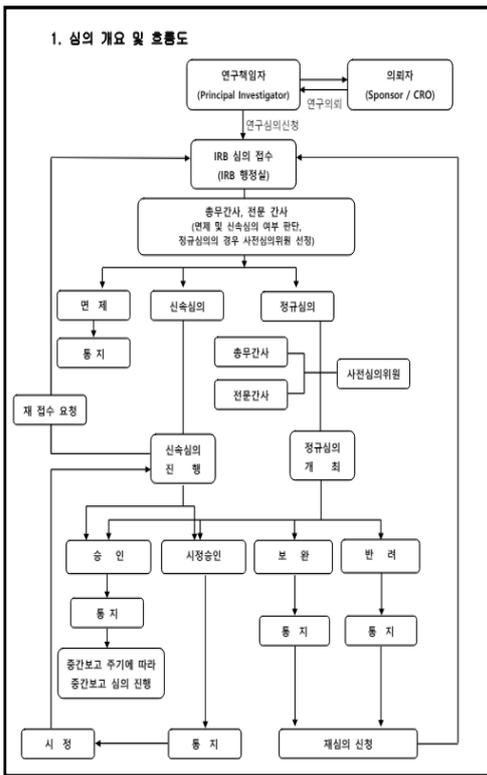
• **[교육] e-IRB 시스템 내 교육시스템(LMS)의 온라인교육 이용방법 안내**

e-IRB 시스템에 탑재된 교육시스템(LMS)의 온라인교육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교육시스템의 온라인교육 이용방법]

1. public.irb.or.kr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진행
 - (회원가입된 경우) 해당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
 - (회원가입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진행
3. 로그인된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클릭 후 상단의 '온라인 교육과정' 클릭
4. 3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하기) 클릭 후 수강 시작
 - [온라인]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온라인]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 [온라인]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5. 교육 수강완료 후 만족도 및 설문조사 참여
6. 상단의 '백이백이시' 클릭 후 해당 교육의 수강증 확인 또는 출력

이곳에 리스트를 입력해주시요.
내용은 이곳에 입력하여 주시요.



- **중재연구(Intervention study)**
 - 연구를 목적으로 중재적 검사나 처치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는 전향적 연구
 - ☞ 중재한 의약품, 세포 및 기타 생물학적 제제, 수술, 방사선 시술, 기기, 검사, 행동치료, 관리 절차 변경, 예방요법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관찰연구**
 - 통상적인 진료 환경 또는 일상 생활에서 (중재적 검사나 처치 없이) 대상자가 관찰되는 연구
-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
 - 일정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특정시점이나 기간 내에 질병을 조사하고 각 질병과 그 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
- **환자대조군연구(case-control study)**
 - 어떤 특정 질환이나 문제를 가진 집단과 그런 질환이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질병이나 문제와 연관된 특정 위험 요소를 밝히는 연구방법
 - ☞ 여기서의 대조군은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연구에서의 시험군 비교대상인 대조군과는 다른 의미임
- **코호트 연구 (Cohort study)**
 - 특정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그런 위험 요소가 그 후에 과연 그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보는 연구
 - 전향적, 후향적 코호트 연구 모두 포함됨
- **설문 조사**
 - 설문지를 이용하는 경우, Survey 연구
- **자료분석 및 분석 연구**
 - 의무기록 조사 및 검토/분석 후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
- **기타**
 - 증례보고(case report)를 포함한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연구

III . IRB 심의 서류

1. 연구심의 신청서(온라인)
2. 연구계획서
3. 연구계획서요약
4. 연구대상자설명문
5. 연구설문지
6.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증례기록지
8. 연구자 이력서
9. 모집공고

여기에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비
슷한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이곳
에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여주세요.

여기에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1

III . IRB 심의 서류 작성

연구계획서

1. 연구제목
2. 연구 실시기관 및 주소
3.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의 수행역할,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직명
4. 연구비 지원기관명
5.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연구대상 및 피험자 선정 및 제외기준(연구대상자 수 근거제시)
7. 예상 연구기간 : IRB 승인일~
8. 연구방법(연구설계,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절차, 연구진행절차, 연구도구(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
9. 자료분석방법
10. 연구수행일정
11.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연구대상자 개인정보 보호방안)
1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수집목적, 이용 및 보관기관(민감한 개인정보 : 나이, 성별, 교육정도 등)
13. 참고문헌

여기에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비
슷한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이곳
에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여기에 입력하여주세요.

여기에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내용을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1

III . IRB 심의 서류 작성

연구대상자 설명문

1. 연구참여에 대한 권유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임상연구에 연구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4. 임상연구에 연구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5.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이나 불편
6. 연구대상자가 기대되는 이익 또는 이식이 없을 경우 해당되는 사실
7. 연구대상자의 임상연구 예상 참여기간
8. 연구대상자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수
9. 임상연구에 참여시 금전적 보상 여부 및 추가적 발생 비용
10. 연구참여 동의 및 중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중도 탈락 사유
11. 신부의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1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목적, 이용 및 보관기간
13. 임상연구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접촉대상자
14. 연구대상자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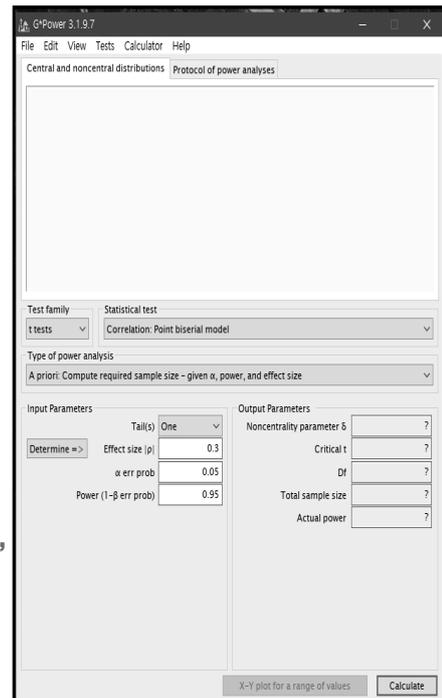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비
공용 키보드에 입력하여주세요. 이곳
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공용
키보드에 입력하여주세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내용은 이곳에 입력하여주세요.

III . IRB 심의 서류 작성

연구대상자 수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 R2 deviation from zero)에
필요한 적정 수의 표본 크기를 산출함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 변수 20개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 수는 157명이었으며,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75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논문

여정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이경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제목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단일기관 연구]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여정화 ¹ , 황희진 ¹ , 정혜진 ¹ , 민해영 ² (¹ 경상국립대학교병원, ² 경상국립대학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여정화(경상국립대학교 산업심리학석사), 황희진(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석사), 정혜진(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석사)
연구목적:	<p>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의 차이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 및 재직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4) 간호사의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 및 재직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설계: 서술적 조사연구 2) 연구대상: G도 J시에 소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간호사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무형태, 근무부서, 근무경력, 직위, 이직경험 9문항 -긍정 간호조직문화: 김미정, 김종경(2021)이 개발한 긍정 간호조직문화 측정도구 26문항 -행복: 서인국,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 9문항 -잡-크래프팅 : slemp, Vella-Brodrick(2013)개발한 Job Crafting Questionnaire (JCQ)를 임명기, 하유진, 오동준, 송영우(2014)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잡-크래프팅 척도(JCQ-K) 15문항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0±5.6세, 성별은 여자 207명(91.2%), 결혼상태는 미혼이 167명(73.6%), 최종학력은 학사 180명(79.3%), 근무부서는 병동이 105명(46.3%),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201명(88.5%), 근무경력은 평균 6.31±5.51년, 직위는 일반간호사 211명(93.0%), 이직경험은 199명(87.7%)이

	<p>없었음.</p> <p>-긍정 간호조직문화는 5점 만점에 3.90점, 행복 정도 평균평점 7점 만점 4.73점, 잡-크래프팅 정도는 5점 만점에 3.58점, 재직의도는 8점 만점에 5.37점으로 측정 되었음.</p> <p>-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 재직의도의 정도 차이결과 직위($t=-2.81, p=.005$)는 책임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 보다 높았음. 행복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음. 잡-크래프팅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직위($t=-2.19, p=.029$)로 책임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 보다 높았음. 재직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연령($F=5.19, p=.002$), 최종학력($F=3.52, p=.031$), 근무부서($F=3.36, p=.020$), 직위($t=-2.19, p=.029$)로, 연령은 35세 이상이 25-29세 보다 높았고, 최종학력은 석사 이상이 전문학사 보다 높았고, 근무부서는 전담이 응급실보다 직위는 책임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 보다 높았음.</p> <p>-재직의도는 긍정 간호조직문화($r=.41, p<.001$), 행복($r=.41, p<.001$), 잡-크래프팅($r=.43, p<.0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 간에도 서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음.</p> <p>-긍정 간호조직문화($\beta=.23, p=.001$), 행복($\beta=.20, p=.003$), 잡-크래프팅($\beta=.21, p=.003$)은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 <p>즉, 긍정 간호조직문화가 높을수록, 행복정도가 높을수록, 잡-크래프팅이 긍정적일수록 재직의도가 높아짐.</p>
<p>결론:</p>	<p>-본 연구는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이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조사연구임.</p> <p>-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근무부서였고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도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 간호조직문화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을수록, 잡-크래프팅이 긍정적일수록 재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음.</p> <p>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간호관리자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능동적 리더십을 높이는 방안과 간호사 개인의 잡-크래프팅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및 간호사의 행복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p>
<p>키워드:</p>	<p>간호사, 긍정 간호조직문화, 행복, 잡-크래프팅, 재직의도</p>

제목	근골격계 통증 동반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탄력밴드 적용 복합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목적:	<p>정신질환자들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손상, 높은 흡연율, 신체활동 부족 및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불건강한 건강행태와 더불어 장기간 정신약물 복용에 따른 추체외로 부작용으로 신체적 건강 문제가 흔하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은 국민 3명 중 1명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신체적 건강 문제로 40대~60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만성정신질환자의 근골격계 통증 역시 증가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p> <p>근골격계 통증은 피로감 증가, 수면장애 및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정신간호 실무현장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을 동반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탄력밴드 적용 복합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중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p>
연구방법:	<p>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연구로 연구대상자는 부산, 경남지역 소재 2개 정신전문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대상자 47명(실험군 24명, 대조군 23명)이다.</p> <p>연구도구는 1) 신체근력(배근력 및 악력), 2) 근골격계 통증, 3) 수면양상, 4)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른 프로그램 처치 효과 확인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사전조사, 사후조사(3주 후), 추후 조사(6주 후)로 확인하였다.</p>
연구결과:	<p>본 연구결과, 탄력밴드 적용 복합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과 집단 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근력인 오른쪽 악력($F=83.96, p<.001$), 왼쪽 악력($F=73.64, p<.001$), 배근력($F=95.2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골격계 통증($F=62.27, p<.001$), 수면양상($F=29.38, p<.001$) 및 삶의 질($F=20.89, p<.001$)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결론:	<p>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을 동반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적용한 복합 저항성 운동프로그램을 주 3회씩 총 6주간 적용한 결과, 신체근력 강화와 함께 근골격계 통증 완화, 수면양상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 실무현장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만성정신질환자에게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안전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p>
키워드:	Exercise Therapy; Mental Disorders; Musculoskeletal Disease

제목	혼종모형을 이용한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분석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이경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박사(동의대학교)
연구목적: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도입, 코로나 19, 원격 의료와 같은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상황에서 임상 간호사의 사회지능이 필요한 간호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론적 기반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임상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간호사의 사회지능의 본질과 속성을 밝혀 개념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 개념 분석을 통해 사회지능을 간호 필수역량으로 실재화하고, 사회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안 마련의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인간 중심 간호를 실현할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chwartz-Barcott & Kim(2000)의 혼종모형에 따라 임상 간호사의 사회지능을 분석하고자 설계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이론적 단계에서 사회지능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검색을 통해 간호사의 사회지능의 잠정적 정의를 내렸다.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내린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최종 단계에서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간호학에서의 사회지능의 통합적 개념의 정의와 차원 및 속성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단계를 거친 결과 임상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사회적 인지 간호역량, 인간 중심 사회적 진화, 복합적인 간호상황 해결 기술의 3개 차원과 10개의 속성, 총 12개의 경험적 지표로 확정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사회지능은 '임상 현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수용적 경청과 사회적 민감성 등의 사회적 인지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 성찰, 관계의 확장 경험을 축적하여 진화된, 복합적인 간호 상황을 유연하게 중재하는 전문적 간호역량'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지능 객관화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심층적인 반복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회지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간호사, 사회지능, 혼종모형, 개념분석, 간호역량

박사 학위 논문

박가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논문 제목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동 맞춤형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박가은(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박사(부산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된 자동 맞춤형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예비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는 혼합 방법 설계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와 내용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검사한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급성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3일~ 2022년 9월 27일이었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32명(중재군 19명, 대조군 13명)이었다. 중재군은 3개월간 자동 맞춤형 목표설정, 교육,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구성된 중재를 적용받았고, 중재 직후 자가관리 자기효능감, 자가관리 행위, 건강 결과, 프로그램의 사용성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와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면담에 참여하였다. 양적 자료는 SPSS WIN 26.0을 이용하여 χ^2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독립표본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고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중 등록 대상자의 비율은 52.5%이었고 중재군과 대조군의 3개월간 탈락률은 각각 15.8%, 15.4%이었으며 중재 순응도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81.3%이었다. 프로그램의 사용성 점수는 66.25점이었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06점이었다. 중재 직후 중재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가 혈당측정 횟수가 증가하였고 곡류 섭취가 감소하였으며, 당화혈색소가 감소하였다. 질적 면담자료 분석결과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론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동 맞춤형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률, 보유율, 중재 순응도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이 검증되었다. 추후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당뇨병; 모바일 앱; 자기조절; 자가관리

석사 학위 논문

강소영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구보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리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노혜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문은정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민지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박미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박미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박민형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박보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백미경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서주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성민경 동탄제일병원

신수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유남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유슬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세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효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선미 창원the큰병원

임연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임윤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미의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정민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은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조민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조은주 중앙메디컬병원

지혜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명지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승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허성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황신애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혜진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논문 제목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강소영(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남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p>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확인하고,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 및 조직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 및 조직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 및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p>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 관련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추후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p> <p>연구대상자는 K도 내 C시 상급종합병원 1곳과 종합병원 1곳, B광역시 대학병원 1곳에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이며,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56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한 후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é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
연구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의 역할갈등 정도는 문항 평균 2.74 ± 0.36점(범위: 1-5점)이었고, 심리적 웰빙은 3.52 ± 0.48점(범위: 1-5점), 간호근무환경은 2.68 ± 0.35점(범위: 1-4점), 조직몰입은 3.15 ± 0.57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은 연령($F=3.28, p=.041$), 직업 만족도($F=14.6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웰빙은 성별($t=1.40, p=.027$), 최종학력($F=5.46, p=.005$), 직업 만족도($F=9.7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근무환경은 연령($F=4.15, p=.018$), 종교유무($t=-1.95, p=.009$), 최종학력($F=4.17, p=.017$), 직업 만족도($F=13.9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직몰입은 직업 만족도($F=32.5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조직몰입은 간호근무환경($r=.57, p<.001$), 심리적 웰빙($r=.3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역할갈등($r=-.60,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대상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근무환경($\beta=.38, p<.001$), 역할갈등($\beta=-.35, p<.001$), 직업 만족도($\beta=.21, p=.001$)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51.0% 설명하였다.
결론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할갈등을 낮추며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수술실 간호사, 조직몰입, 역할갈등, 심리적 웰빙, 간호근무환경

논문 제목	긍정 간호조직문화, 돌봄-배려행위와 간호의 질의 관계에서 병원조직건강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구보람(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상급종합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긍정 간호조직문화, 돌봄- 배려행위 및 병원조직건강 정도를 살펴보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이들이 간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G도 C시에 소재한 1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로서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19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긍정 간호조직문화는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60 ± 0.59점, 돌봄-배려행위는 6점 만점에 4.23 ± 0.73점, 병원조직건강은 5점 만점에 3.40 ± 0.57점, 간호의 질은 4점 만점에 2.92 ± 0.45점이었다.</p> <p>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형1에서 일반적 특성 중 근무부서의 ‘외과계 병동’ ($\beta = .21, p = .004$), ‘기타(외래)’ ($\beta = .16, p = .027$), 부서 만족도의 ‘만족’ ($\beta = .57, p < .001$), ‘보통’ ($\beta = .32, p = .006$), 직무스트레스의 ‘보통’ ($\beta = .15, p = .026$)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38.0%이었다 ($F = 5.83, p < .001, R^2 = .380, \text{Adj-R}^2 = .315$). 모형 2에서는 긍정 간호조직문화 ($\beta = .33, p = .001$)이었으며, 돌봄-배려행위 ($\beta = .15, p = .140$)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모형2의 총 설명력은 48.4%이었다($F = 7.92, p < .001, R^2 = .484, \text{Adj-R}^2 = .423$). 모형 3에서는 병원조직건강($\beta = .47, p < .001$)는 간호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3의 총 설명력은 57.2%이었다($F = 10.70, p < .001, R^2 = .572, \text{Adj-R}^2 = .519$).</p> <p>긍정 간호조직문화와 간호의 질의 관계에서 병원조직건강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병원조직건강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B = .27, 95\% \text{CI} = .18 \sim .37$), 돌봄-배려행위와 간호의 질의 관계에서 병원조직건강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병원조직건강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 = .21, 95\% \text{CI} = .14 \sim .28$).</p>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조직 차원에서 업무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의 조성 및 관리와 병원조직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돌봄-배려행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돌봄-배려행위, 병원조직건강, 긍정 간호조직문화, 간호의 질

논문 제목	신규간호사의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 공감역량이 임종간호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김리나(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신규 간호사의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 공감역량이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p>본 연구는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 공감역량이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p> <p>연구대상자는 G도 J시에 위치한 G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임종을 경험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p> <p>연구도구는 임종간호스트레스,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 공감역량이다. 각 도구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Cronbach's α는 .92이상이었다.</p> <p>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 공감역량 및 임종간호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단순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p>
연구결과	<p>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차이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입사 후 임종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1~3개월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임종간호 교육경험은 없는 경우가 80.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임종간호 교육의 필요성은 95.8%가 느끼고 있었다.</p> <p>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임종간호교육경험($t = -2.43, p = .016$)이었고, 임종간호교육경험은 없다(3.82 ± 0.49)가 있다(3.57 ± 0.45) 보다 임종간호 스트레스가 높았다.</p> <p>임종간호 스트레스는 죽음불안과는 강한 정적상관($r = .71, p < .001$)이 있었으며, 임종간호역량과는 중등도의 부적상관($r = -.36, p < .001$)이, 공감역량과는 약한 부적상관($r = -.25, p = .006$)이 있었다.</p> <p>다중회귀분석결과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죽음불안($\beta = .66, p < .001$), 임종간호역량($\beta = -.25, p = .003$)이었다. 즉, 죽음불안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역량이 낮을수록 임종간호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55.6%였다($F = 26.45, p < .001$)</p>
결론	본 연구결과 죽음불안, 임종간호역량은 신규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종간호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죽음불안을 낮추고, 임종간호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임종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주기적인 임종간호교육 및 중재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Nurses, Death, Terminal care, Empathy, Anxiety

논문 제목	심장질환자의 약물복용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노혜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장질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질병관련 및 약물복용 특성, 우울, 건강정보 이해능력, 사회적 지지, 약물에 대한 신념이 약물복용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인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급성 심부전 및 만성 심부전을 진단으로 순환기내과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심장내과 전문의에 의해 최소 6개월 전에 심장질환을 진단받고 현재 심혈관계 치료약물을 복용중인 자들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144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약물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로, 우울, 건강정보 이해능력, 사회적지지, 약물에 대한 신념, 약물복용 이행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약물관련 특성, 우울, 건강정보 이해능력, 사회적지지, 약물에 대한 신념에 따른 약물복용 이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s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약물복용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심장질환자의 약물복용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약물복용 이행의 평균점수는 5.48 ± 2.02 점, 우울은 평균점수 12.95 ± 10.40 점, 건강정보 이해능력의 평균점수는 5.34 ± 2.40 점이었다.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04 ± 0.64 점으로 하위항목 중 가족지지는 3.02 ± 0.74 점, 의료인지지 3.09 ± 0.69 점이었다. 약물에 대한 신념의 평균점수는 1.54 ± 6.29 점이었으며 하위항목으로 약물에 대한 신념 중 필요성의 평균점수는 17.76 ± 4.48 점, 염려의 평균점수는 16.22 ± 3.55 점이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모델에서 약물복용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정보 이해능력($\beta=.20, p=.040$), 사회적지지($\beta=.42, p<.001$)와 약물에 대한 신념 중 필요성($\beta=.24,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3.4%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심장질환자의 약물복용 이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및 약물에 대한 신념 중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맞춰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약물복용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심장질환자, 약물복용 이행, 건강정보 이해능력, 사회적지지, 우울

논문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 비교 연구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문은정(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로 총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각 근무지에서 업무를 만 3개월 이상 수행한 자 1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근무환경은 Lake (2002)가 개발한 PES-NWI(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를 조은희 등(2011)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간호업무 환경 측정도구인 K-PES-NWI(Korea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역할갈등은 House 등(1983)이 개발한 역할갈등 및 모호성 척도(Role Conflict and Ambiguity Scale: RCAS)를 김문실과 박상연(1995)이 한국적 상황 특히 간호사들이 병원 생활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 RCI-S (Role Conflict Inventory-Specifi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배태성 측정도구는 Mitchell 등(2001)이 개발한 도구를 김은희 등(2012)이 구성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 직무배태성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27.0 program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기술통계분석, ANCOVA, Mann-Whitney U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역할갈등, 직무배태성을 비교한 결과 간호근무환경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갈등은 일반병동 간호사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배태성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근무환경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유형, 연봉, 연봉 만족 여부, 간호직 종사 계획, 간호직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역할갈등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연봉, 연봉 만족 여부 간호직 종사 계획, 간호직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배태성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유형, 연봉, 연봉 만족 여부, 간호직 종사 계획, 간호직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역할갈등 및 직무배태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배태성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지만, 간호근무환경과 역할갈등, 역할갈등과 직무배태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배태성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간호근무환경과 역할갈등, 역할갈등과 직무배태성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결론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간호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직무배태성이 증가하나 역할갈등은 직무배태성과 관련이 없으며, 근무환경과 역할갈등 간에도 서로 관련이 없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간호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역할갈등이 감소하고, 직무배태성은 증가하였으며, 역할갈등이 증가할수록 직무배태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Intensive Care Unit Nurses, General Ward Nurses, Nursing Work Environment, Role Conflict, Job Embeddedness

논문 제목	임상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잡 크래프팅을 중심으로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민지현(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잡 크래프팅 및 직무만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임상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G도 C시 소재의 대학병원, G도 J시 소재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6개월 이상 임상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대상자는 15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기술 통계분석, t- 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임상전담간호사의 잡 크래프팅은 평균평점 6점 만점에 3.79 ± 0.62점, 전문직 자율성 점수는 240점 만점에 134.61 ± 14.30점, 직무만족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07 ± 0.54점 이었다.</p> <p>임상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전문직 자율성($r=.30, p<.001$), 잡 크래프팅($r=.35, p=.001$)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역할갈등($r=-.17, p=.032$)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p> <p>임상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1에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여부($\beta=.19, p=.017$)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에 비해 미혼일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형2에 추가로 투입된 결혼여부, 잡 크래프팅, 전문직자율성, 역할갈등 중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역할갈등($\beta=-.21, p=.004$), 결혼여부($\beta=.19, p=.017$), 잡크래프팅($\beta=.26, p=.013$)이었다. 즉,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결혼여부 중 미혼일수록, 잡크래프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p>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만족 향상프로그램 적용, 공인된 업무 기술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제도의 확립을 통한 역할갈등을 해소, 전문직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변인들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 및 임상전담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측정 도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을 적용 가능 하도록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키워드	임상전담간호사, 직무만족,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잡 크래프팅

논문 제목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 우선순위 분석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박미리(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인제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확인함으로써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안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부산, 경남 소재 26개 기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력 1년 미만의 응급실 신규간호사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하였다(회수율 88.2%).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 및 Microsoft Excel 2016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대응표본 t검정, Borich 요구도 공식,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 요구의 최우선 순위 및 차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응급간호역량에 대한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현재수행능력과 요구수준의 차이 분석 결과 34개의 항목 중 26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종합한 결과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도로 34가지 중 4가지 항목(심혈관 환자 상태 악화의 임상 지표, 발작 관리, 신경계 환자 상태 악화의 임상 지표, 인공호흡기 관리)이 최우선 순위로 도출되었으며, 10가지 항목(응급상황시 약물 투여량 계산, 기본 심장 생리학에 대한 지식, 비정상적인 심전도 판독, ABCDE 평가, ABLS, 수동 체세동기, 심폐소생술 중 투여되는 약물, 기본 신경 생리학에 대한 지식, 체외-심실 배수관 관리, 호흡기 환자상태 악화의 임상지표)이 차우선 순위로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 순위를 분석하여 4가지 최우선 순위 항목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응급실 신규간호사의 응급간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순위 항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대한 전략 개발 및 차우선 순위 항목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응급실 신규간호사, 응급간호 역량, 교육 요구도

논문 제목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박미지(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긍정적 감정노동인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 감성지능,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경력 6개월 이상인 12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기준은 외래간호사, 전담간호사, 수간호사 이상의 간호관리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서 G도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IRB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8월~9월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 감성지능,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방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중 직무만족에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미혼 기준), 학력(학사 기준), 직위(일반간호사 기준), 총경력(3~10년 미만 기준) 등 4개의 변수를 통제한 뒤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이 매개변수인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4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beta=.20$)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5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과 매개변수인 감성지능,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인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영향($\beta=.39, p<.001$), 사회적 지지도 유의한 정적 영향($\beta=.2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0.6%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는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의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7, p<.001$),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는 감정노동의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전문직 감정조절 노력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법을 통해 매개효과크기를 검증한 결과 유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직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간호사가 감정노동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 개인의 감성지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긍정적인 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을 유발하는 감성지능 강화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임상현장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실무에 대한 정보를 단위교육, 어플리케이션, 전산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교육을 활성화시켜 정보적 지지를 지원하고 조직에서 각종 복리후생, 물질적 보상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구성하여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간호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간호사, 감정노동, 직무만족,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논문 제목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박민형(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창원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가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공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공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공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4) 간호업무성공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p>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연구로 C특례시 C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 2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9문항, 간호업무성공 19문항, 직무스트레스 43문항, 사회적지지 23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으로 도구의 원작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 후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간호업무성공의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보호는 위해 C종합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7001066-202205HR-019)을 받은 후 23.7.28~8.19까지 진행하였다.</p>
연구결과	<p>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성취, 월 평균급여, 근무부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간호업무 관련사항 순으로 확인되었다.</p>
결론	<p>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공 향상을 위해 개인의 성취감과 정서적 지지를 높이고 급여 만족과 간호업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는 저하 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조직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호업무성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p>
키워드	임상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공

논문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강인성,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박보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창원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강인성,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며,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간호사 19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경상남도 C시에 위치한 S상급종합병원 및 3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강인성,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환자실 간호사 191명 중 152명이 6개월 내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소리지름·난동·섬망과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의 간호였으며, 한 달에 외상사건을 1~3회 경험한다는 응답이 57명이었다. 이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평균 3.45 ± 2.51 점이었다. 애착을 가진 환자의 외상 사건은 88명이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평균 2.14 ± 2.64 점이었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강인성은 70점 만점에 평균 49.71 ± 8.43 점이었으며 의도적 반추는 30점 만점에 평균 17.27 ± 4.71 이었고 외상 후 성장은 72점 만점에 평균 43.50 ± 12.76 점이었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은 최종학력($t = -2.17, p = .031$), 외상정도($F = 3.15, p = .04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점이(46.34 ± 12.93) 7점 이상(40.39 ± 13.00)보다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외상 후 성장은 의도적 반추($r = .52, p < .001$), 강인성($r = .51,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도적 반추($B = 1.01, p < .001$), 강인성($B = 0.52,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 후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심리적 자원인 강인성과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 및 교육 개발과 후속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중환자실 간호사, 외상 후 성장, 강인성, 의도적 반추

논문 제목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백미경(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감염관리 조직문화,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의 정도를 확인하고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	C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중에서 병원의 규모, 병동 단위, 조직의 구성의 수준 등이 유사한 2개 병원의 17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3년 6월 19일부터 2023년 7월31일 까지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감염관리 조직문화,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및 수행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간의 차이를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식, 감염관리 조직문화,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은 5점 만점에 4.64 ± 0.38 점, 감염관리 조직문화는 7점 만점에 5.53 ± 0.64 점, 근거기반실무 신념은 5점 만점에 3.43 ± 0.45 점,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는 5점 만점에 3.24 ± 0.57 점,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은 5점 만점에 4.57 ± 0.39 점 이었다.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은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r=.69, p<.001$), 감염관리 조직문화($r=.40, p<.001$), 근거기반실무 신념($r=.32, p<.001$),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r=.22, p=.003$)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감염관리 조직문화, 근거기반실무 신념,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간에도 서로 상관관계가 ($r=.15 \sim .47$) 있었다.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beta=.58, p<.001$), 근거기반실무 신념($\beta=.13, p=.047$)은 유의하게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 즉,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이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신념이 높을수록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의 총 설명력은 56.1% 이었다 ($F=22.69, p<.001, R^2=.561, Adj-R^2=.536$).
결론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에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근거기반실무 신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감염관리 조직문화, 근거기반실무 조직문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및 근거기반실무 신념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종합병원 간호사, 근거기반 감염관리 수행, 근거기반 감염관리 인식, 근거기반실무 신념

논문 제목	상급종합병원 MZ세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보상만족, 신뢰성, 조직신뢰,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서주완(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MZ세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보상만족, 신뢰성, 조직신뢰, 조직공정성, 조직몰입을 확인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연구를 적용하여 상급종합병원 MZ간호사의 조직몰입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MZ세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 대상자는 24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χ^2 -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의 분석은 Elo와 Kyngas(2008)가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p>상급종합병원 M세대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서 결혼여부($\beta=.24, p=.011$)와 최종학력($\beta=.19, p=.032$)이 29.8%, 모형 2에서 일과 삶의 균형($\beta=.30, p<.001$), 보상만족($\beta=.32, p<.001$), 조직공정성($\beta=.20, p=.035$)이 60.7%로 이들 변수가 각 모형에서 상급종합병원 M세대 간호사의 조직몰입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상급종합병원 Z세대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성별($\beta=-.18, p=.038$)이 3.5%, 모형 2에서 일과 삶의 균형($\beta=.18, p=.010$), 보상만족($\beta=.30, p<.001$), 조직신뢰($\beta=.37, p<.001$)이 44.9%로 이들 변수가 각 모형에서 상급종합병원 Z세대 간호사의 조직몰입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상급종합병원 M세대 간호사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원함’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 ‘내 일터가 주는 자부심’ ‘동료와의 유대감’ ‘조직의 투명성 및 차별 해소 원함’ 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Z세대 간호사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원함’ ‘개인의 삶과 직장생활의 균형’ ‘일터에서의 자기성장’ ‘동료와의 긍정적인 협업’ ‘상사의 상호작용하는 태도’ ‘공정한 대우를 원함’ 으로 나타났다.</p>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MZ세대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교대근무 근무자도 적극 이용 가능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 내의 취미 동아리를 다양화하고 학업지원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강도에 맞는 금전적 보상을 책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휴가를 통해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조직의 결정에 구체적인 이유를 구성원들에게 설명해주고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조직신뢰를 향상시켜 조직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보상의 분배 과정과 근거, 승진과 인사이동의 절차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직 공정성을 증진시켜 조직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
키워드	MZ세대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보상만족, 신뢰성, 조직신뢰,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논문 제목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과 외로움 극복 경험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적용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성민경(동탄제일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 경험과 외로움을 극복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과 외로움 극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내용 분석(Elo & Kyngas, 2008) 방법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COVID-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했으나 현재 좋아졌다고 답변한 중소도시 65세 이상 재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최종 모집된 참여자 수는 1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반 구조화 인터뷰의 형식으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로움 정도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외로움 경험과 외로움 극복 경험은 질적 내용분석법으로 하였다(Elo & Kyngas, 2008).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외로움 경험과 외로움 극복 경험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진술 40개를 추출하였다. 40개의 진술로부터 총 7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 경험은 4개 주제와 8개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4가지 주제는 '가족과의 만남이 기약 없어짐',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며 멀어지게 됨', '사회로부터 단절됨', '돌봄 관계가 상실됨'이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 극복 경험은 3개 주제와 6개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3가지 주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함', '일상의 삶을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시킴', '내면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함'이었다.
결론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했으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외로움을 극복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과 외로움 극복 경험을 탐색하고자 FGI를 적용한 질적 연구로, 이를 통해 여성 노인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탐색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시기 여성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들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여성 노인, 외로움, 외로움 극복, COVID-19, 포커스 그룹 인터뷰

논문 제목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와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 비교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신수진(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 암병동에 입원한 암환자와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암병동에서 인간중심돌봄 실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G 도의 J 시 G 대학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및 간호사로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 년 8 월 17 일부터 10 월 20 일까지 실시하였고, 입원한 암환자 175 부, 암병동 간호사 60 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p>암환자들이 어떻게 인간중심돌봄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식 질문의 답변을 주제분석한 결과 “이해와 공감”, “따뜻한 격려와 위로”, “적극적인 설명”, “지속적인 확인과 즉각 대응”, “가족 같은 돌봄”, “전문적 지식”, “개인적 선택의 존중” 이 나타났다.</p> <p>암환자의 ICS-A는 5점 만점 중 평균 3.47 ± 0.80점, 암병동 간호사는 3.56 ± 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95$, $p=.344$). ICS-B는 암환자는 5점 만점 중 평균 3.75 ± 0.76점, 암병동 간호사는 3.83 ± 0.5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8$, $p=.378$).</p>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암환자와 암병동 간호사 간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는 암병동 내에서 인간중심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없애고, 상호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암병동 간호사들에게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실무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 및 병원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재배치 및 환자 수 조절을 통해 각 암환자에게 충분한 간호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간호사들이 환자의 권리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돌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암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의 인식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간호 실무에서 환자 중심의 관점을 강화하고, 간호사와 환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암환자, 암병동 간호사, 인간중심돌봄, 인식

논문 제목	신생아중환자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면회 프로그램 적용 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유남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면회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통한 입원 환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지각 및 모아애착 상승과 부모스트레스 감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며, 연구대상자는 G도 C시의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어머니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총 4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실험군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조군은 2022년 7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전조사, 사후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제작 의뢰한 ‘도담도담’을 이용하여 면회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는 실험군에게는 사전조사 후 ‘도담도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면회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조사가 진행되었고, 대조군에게는 사전조사 후 기존 면회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과 사후로 신생아지각, 모아애착, 부모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에게 ‘도담도담’ 애플리케이션 활용 면회프로그램 시행 후 사후에 신생아지각, 모아애착, 부모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기존 면회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에 신생아지각, 모아애착, 부모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제 1가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면회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지각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신생아지각 점수는 사전 3.48 ± 0.49 점에서 사후 3.78 ± 3.82 점으로 0.31 ± 0.29 점 상승하였으며 유의하였고($t=4.83, p<.001$), 대조군은 사전 3.78 ± 0.52 점에서 사후 3.82 ± 0.82 점으로 0.04 ± 0.63 점 상승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았다($t=0.29, p<.799$). 실험군의 신생아지각 점수 변화와 대조군의 점수변화는 유의하지 않아($t=-1.77, p=.085$) 제 1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2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아애착 점수가 높을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면회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모아애착 점수는 사전 3.89 ± 0.09 점, 사후 3.95 ± 0.05 점으로 0.05 ± 0.11 점 상승하였으나 점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으며($Z=-1.91, p=.056$), 대조군의 모아애착 점수는 사전 3.77 ± 0.33 점, 사후 3.75 ± 0.23 점으로 0.02 ± 0.25 감소하였으며 점수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Z=-1.45, p=.147$).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점수변화와 대조군의 점수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채택되었다($Z=-2.35, p=.019$). 제 3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부모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면회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부모 스트레스 점수는 사전 3.66 ± 0.66 점에서 사후 2.61 ± 0.38 점으로 1.05 ± 0.82 점 감소하였으며 유의하였고($Z=-3.40, p=.001$), 대조군의 부모스트레스 점수는 사전 3.60 ± 0.48 점에서 사후 3.42 ± 0.74 점으로 0.18 ± 0.90 점 감소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았다($Z=-0.76, p=.449$).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부모스트레스 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아져($Z=-3.21, p=.001$) 제 3가설은 채택되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면회프로그램은 신생아중환자실 어머니의 모아애착을 상승시키고, 부모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COVID-19, 고위험 신생아, 모아애착, 부모스트레스, 신생아지각

논문 제목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수면의 질과 배우자 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유슬기(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창원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수면의 질, 배우자 지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유방암 환자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경상남도 C시에 소재한 S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면의 질은 Bastien 등(2001)이 개발하고 Cho 등(2014)이 표준화하고 검증한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 도구(ISI-K) 7문항을 사용하였고, 배우자 지지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남가실(1988)이 개발하고 사용한 도구 18문항을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에 의해 2003년 개발된 CD-RISC의 한국판 CD-RISC 도구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면의 질은 4점 만점에 평균 1.56 ± 0.98 점이고, 배우자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4.08 ± 0.96 점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77 ± 0.56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연령, 결혼 기간, 종교 유무, 교육 정도, 가구 월 소득, 경제적 부담 정도, 배우자 직업 유무, 병기, 암 진단 기간, 수술력 여부, 전이 여부, 재발 여부, 항암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의 질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배우자 지지는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면의 질과 배우자 지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지지, 수면의 질, 전이(없음), 종교(있음)와 학력(대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9%이었다.
결론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과 배우자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가 경험하게 되는 부작용과 수면의 질 정도를 사정하고 관리하며, 배우자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간호 중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고려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키워드	항암화학요법, 유방암, 수면의 질, 배우자 지지, 회복탄력성

논문 제목	PCA 블렌디드 교육이 하지골절 수술환자의 통증, 통증조절 만족도, 지식 및 사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이세연(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창신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하지골절 수술환자들을 대상으로 PCA 블렌디드 교육을 실시한 후 수술 후 통증, 통증조절 만족도, PCA 사용지식 및 사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방법	<p>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S대학병원의 18세 이상의 하지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60명으로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배정하였고,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였으며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순으로 진행되었다. PCA 블렌디드 교육은 PCA 동영상 교육, 실물모형 실습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혼합교육이다. 실험처치로 실험군에게 수술 전날 동영상 교육과 실물모형 실습교육의 혼합교육을 면대면으로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PCA 교육을 제공하였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증은 NRS 숫자 척도를 이용하였고, 통증조절 만족도는 미국통증협회-환자결과질문지(APS, 1995)에서 통증관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환자결과 설문 문항을 외과계에 맞게 엄미용(20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고, PCA 사용지식 정도 및 사용태도는 Knoerl(1999)이 개발하고 이진희와 조현숙(20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p> <p>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test,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Independent t-test, Mann-Whithney U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처치 후의 효과검증은 Independent t-test, Mann-Whithney U Test로 실시하여 분석하였다.</p>
연구결과	<p>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가설인 “일반적인 PCA 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PCA 블렌디드 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 통증이 더 감소될 것이다.” 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Z=-3.97, p<.001$). 2) 제 2가설인 “일반적인 PCA 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PCA 블렌디드 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 통증조절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t=4.12, p<.001$). 3) 제 3가설인 “일반적인 PCA 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PCA 블렌디드 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 PCA 사용지식 정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Z=-3.46, p<.001$). 4) 제 4가설인 “일반적인 PCA 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PCA 블렌디드 교육을 받은 실험군에서 PCA 사용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Z=-5.34, p<.001$).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PCA 블렌디드 교육은 하지골절 수술환자들에게 수술 후 통증, 통증조절 만족도, PCA 사용지식 및 사용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핵심어: 하지골절 수술환자, PCA 교육, 통증, 통증조절 만족도, PCA 사용지식 및 사용태도

논문 제목	뇌졸중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와 영향요인: 이단계 군집분석 활용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이효정(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부산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증상클러스터를 규명하고, 각 클러스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증상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뇌졸중 진단 후 8일에서 6개월 이내인 240명의 환자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Y시 P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서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편측마비, 연하곤란, 구음장애, 통증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Fisher의 정확검정, 일원분산분석, Kruskal-Wallis 검정, 이단계 군집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뇌졸중 환자 중 편측마비는 83.7%, 구음장애는 72.9%의 대상자가 경험하였고, 연하곤란 선별을 위한 PAS 점수는 평균 3.37 ± 2.81 점, 통증 강도는 1.73 ± 0.84 점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의 증상을 기반으로 이단계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심한 복합 증상 그룹(severe symptom complex group)’, ‘편측마비와 구음장애 그룹(hemiplegia with dysarthria group)’, ‘편측마비 그룹(hemiplegia group)’, ‘중등도 연하곤란과 반발생 구음장애 그룹(moderate dysphagia with half-occurrence dysarthria group)’의 4개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증상클러스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등도 연하곤란과 반발생 구음장애 그룹’을 참조범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의 결정계수(R^2)는 23.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chi^2=50.96$, $p<.001$), 좌측($OR=6.68$, $p=.039$) 또는 우측($OR=7.86$, $p=.028$)의 뇌 손상 병변이 있고, 신체기능 장애 정도가 심한($OR=2.53$, $p<.001$) 환자는 ‘심한 증상 복합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좌측($OR=4.86$, $p=.018$) 또는 우측($OR=5.45$, $p=.014$)의 뇌 손상 병변이 있고 신체기능 장애 정도($OR=1.67$, $p=.009$)가 심한 환자는 ‘편측마비와 구음장애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우측($OR=5.40$, $p=.024$) 뇌 손상 병변을 가진 환자는 ‘편측마비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뇌졸중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들은 증상부담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증상 클러스터를 나타냈다. 그 중 좌측 또는 우측 뇌손상, 높은 신체기능 장애 정도는 증상 부담이 가장 높은 두 개의 클러스터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뇌졸중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증상 교육 및 증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뇌졸중, 증상, 증상클러스터

논문 제목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열의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임선미(창원the큰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창원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직무열의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성 연구로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G도에 위치한 중소병원 6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자가기입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간호근무환경, 직무열의, 재직의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적 변수 선택법을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인식한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2.57 ± 0.57 점, 하위영역별로는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의 지지’ 2.82 ± 0.60 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2.77 ± 0.66 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2.60 ± 0.56 점,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2.47 ± 0.68 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37 ± 0.70 점이었다. 직무열의는 6점 만점에 2.94 ± 0.97 점, 하위영역별로는 ‘헌신’ 3.25 ± 0.99 점, ‘몰입’ 2.94 ± 1.18 점, ‘활력’ 2.63 ± 1.04 점이었다, 재직의도는 8점 만점에 5.00 ± 1.54 점이었다. 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36.4%였다($F=40.67, p<.001$). 분석 결과 직무열의 ‘헌신’ ($\beta=.41, p<.001$), 간호근무환경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beta=.28, p=.045$), 연령($\beta=.15, p=.028$)이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 영향요인으로 직무열의 ‘헌신’, 간호근무환경의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무열의 중 ‘헌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제도적 장치 및 정책적 지원으로 중소병원의 인력 충원 및 물질적 지원을 통한 중소병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간호근무환경, 직무열의, 재직의도, 중소병원간호사

논문 제목	노인전문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환자중심간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임연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간호실무의 노인간호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요인과 노인간호실무의 관계에서 환자중심간호의 매개효과를 살펴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134명의 노인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데이터는 16년 15월 2023일부터 27월 0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의 상관 계수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4.0%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40.18세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4.2%이었고, 종교는 종교 있음이 54.5%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석사가 67.9%로 가장 많았고 월급여는 300~400만원 미만이 52.2% 가장 많았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50.7%이었다. 병원경력은 10~20년 미만이 41%이었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50.7%이었다. 근무부서는 내과계가 42.5%로 가장 많았고, 병원규모는 대학병원이 40.3%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상근직이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노인전문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5.08±3.03점이었고, 정답률은 60% 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140점 만점에 평균 84.46±14.54점이었으며 평균평점은 7점 만점에 4.22±0.73점이었다. 3) 노인전문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은 64점 만점에 54.75±7.04점이었으며,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3.42±0.44점 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전문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성별(t=2.59,p=.011), 연령(F=4.145, p=.008), 직위(F=3.64, p=.029), 노인과 동거경험(t=2.55, 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45세 이상이 34세 이하보다 노인간호실천정도가 높았고 직위는 주간호사 이상이 책임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5) 노인전문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은 전문직 자아개념(r=.57, p<.001), 간호근무환경(r=.33, p<.001), 환자중심간호(r=.61,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r=.06, p=.499), 노인에 대한태도(r=-.09, p=.315)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6) 노인전문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문직 자아개념(β=.33, p<.001), 환자중심간호(β=.39, p<.001)이었다. 이들의 총 설명력은 54.4% 이었다. 7) 노인전문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과 노인간호실천의 관계에서 환자중심간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과 노인간호실천에 환자중심간호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전문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환자중심간호를 강화를 통해 노인간호실천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키워드	노인전문간호사 ; 노인간호실천 ; 환자중심간호 ; 전문직 자아개념

논문 제목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이 근거기반 실무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임윤영(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창원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p>본 연구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이 근거기반 실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과 근거기반 실무역량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과 근거기반 실무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과 근거기반 실무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과 근거기반 실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p>본 연구는 2023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 20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과 근거기반 실무역량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s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p>
연구결과	<p>근거기반 실무역량은 연령($F=2.87, p=.038$), 총 임상경력($F=4.54, p=.004$), 현재 직위($F=2.84, p=.039$), 간호연구방법론 수강 여부($t=3.00, p=.003$), 보건의료통계학 수강 여부($t=2.29, p=.023$), 학술단체 소속 여부($t=3.34, p<.001$), 학술대회 경험 여부($t=3.3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 실무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r=.6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습민첩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70, p<.001$). 또한, 학습민첩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7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기반 실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민첩성($\beta=0.43, p<.001$), 비판적 사고성향($\beta=0.32, p<.001$), 학술단체 소속 여부($\beta=0.16, p<.001$), 총 임상경력(5~10년 미만) ($\beta=-0.14, p=.004$)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설명력은 56.7%이었다.</p>
결론	<p>근거기반 실무역량은 임상현장에서 개인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환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습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근거기반 실무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간호사들의 학술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임상경력에 따른 근거기반 실무역량 증진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p>
키워드	간호사,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민첩성, 근거기반 실무역량

논문 제목	기혼여성 간호사의 일-가정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정민경(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혼여성 간호사의 일-가정 갈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간호근무환경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기혼여성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J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기혼여성 간호사 중연구에 동의한 149명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와 ANOVA, Scheffe 사후검증,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p>기혼여성 간호사의 일-가정 갈등은 5점 만점에 평균 2.99 ± 0.72점, 간호근무환경 2.50 ± 0.39점, 이직의도는 5점 만점 평균 3.96 ± 0.69점이었다.</p> <p>일-가정 갈등과 이직의도 관계에서 간호근무환경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p> <p>1단계에서 일-가정 갈등은 간호근무환경에 유의한 부적영향($\beta = -.2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일-가정 갈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적영향($\beta = .3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간호근무환경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간호근무환경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적영향($\beta = -.17, p = .0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갈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적영향($\beta = .3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일-가정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beta = .32$)이 1단계에서 미치는 영향($\beta = .36$)보다 감소하여 간호근무환경은 일-가정 갈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설명력은 25.9% 이었다($F = 7.46, p < .001$).</p> <p>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은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호근무환경에 의해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B = .042, 95\%CI = .007 \sim .087$).</p>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 대상 기혼여성 간호사의 일-가정 갈등과 이직의도는 서로 영향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되었으며 간호근무환경이 일-가정 갈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근무환경의 개선방안과 기혼여성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혼여성, 간호사, 일-가정 갈등, 이직의도, 간호근무환경

논문 제목	수술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전문직 정체성, 긍정심리자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정은아(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남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전문직 정체성, 긍정심리자본과 소진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수술실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여 수술 간호의 질적 향상과 간호인력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전문직 정체성, 긍정심리자본 및 소진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한 후 소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문항평균 3.54 ± 0.31점, 전문직 정체성은 문항평균 3.68 ± 0.45점, 긍정심리자본은 문항평균 3.40 ± 0.36점, 소진은 문항평균 2.46 ± 0.62점으로 나타났다. 2.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및 근무 관련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근무 형태($t = -0.73, p = .007$), 근무 배경($t = -3.04, p = .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수술실 간호사의 소진은 의사소통능력($r = -.42, p < .001$), 전문직 정체성($r = -.35, p < .001$), 긍정심리자본($r = -.27, p < .001$)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수술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beta = -.32, p < .001$), 근무 형태($\beta = .24, p < .001$), 전문직 정체성($\beta = -.23, p = .035$), 근무 배경($\beta = .19, p = .012$)으로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6%($F = 10.99, p < .001$)로 나타났다.
결론	수술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본인 희망으로 수술실에 발령받을 수 있는 간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과 전문직 정체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수술실 간호사, 의사소통능력, 전문직 정체성, 긍정심리자본, 소진

논문 제목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역량과 윤리적 간호역량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조민주(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역량, 윤리적 간호역량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Y시 소재 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56명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자가보고형 설문으로, 일반적 특성 및 환자안전사고 관련 특성,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역량, 윤리적 간호역량,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 측정 도구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근접오류 보고 의도는 61.28 ± 26.27 점, 위해사건 보고 의도는 85.31 ± 17.32 점이었고,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3.51 ± 0.43 점, 환자안전역량은 3.97 ± 0.40 점, 윤리적 간호역량은 3.17 ± 0.34 점이었다. 대상자의 근접오류 보고 의도는 결혼상태($t=2.34,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r=.20, p=.001$), 총 임상 경력($r=.23, p<.001$), 환자안전사고 정의에 대한 인지 정도($r=.26, p<.001$),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대한 인지정도($r=.26,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위해사건 보고 의도는 환자안전사고 정의에 대한 인지정도($r=.16, p=.009$),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에 대한 인지정도($r=.20, p=.002$)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이 높을수록 근접오류 보고 의도($\beta=.30, p<.001$)가 높았으며 회귀모형 설명력은 20.5%이었다($F=9.24, p<.001$). 환자안전역량이 높을수록($\beta=.35, p<.001$) 위해사건 보고 의도 또한 높았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7%였다($F=8.42, p<.001$).
결론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중요성과 보고체계에 대한 정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자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도,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역량, 윤리적 간호역량

논문 제목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 프로그램이 입원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율신경활성도,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조은주(중앙메디컬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입원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자율신경활성도,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고,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원아동 부모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감성 놀이터에서 개발한 심리치유 VR 영상 중에서 겨울의 숲(눈 덮힌 숲길), 봄의 숲(바다와 접한 숲길), 여름의 숲(대나무 숲길) 3가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가상현실 구현 기기로는 360° 카메라, Head Mount Display(HMD) VR 디바이스와 Window Mixed Reality를 사용하였다. 또한 체험 공간에는 청각(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촉각(대나무, 나뭇잎, 솔방울), 후각(편백오일, 티트리오일)을 동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였다. 실험군에는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프로그램을 1일/1회/30분의 조건으로 총 3회(90분)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미실시 그룹)과 실험군에 대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자율신경활성도 측정을 수행하였고, 질적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p>1) 가설 1 :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원 아동 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입원 아동 부모보다 부모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82.86±18.48에서 74.60±15.70(t=4.80, p<.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92.66±17.30에서 91.06±18.81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98, p=.344). 실험군의 양육 스트레스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가설1은 채택되었다.</p> <p>2) 가설 2 :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원 아동 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입원 아동 부모보다 자율신경활성도가 더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LF의 ms²는 417.54±553.48 ms²에서 780.94±1373.35 ms²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80, p=.427), 대조군도 393.74±339.22 ms²에서 477.41±645.72 ms²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8, p=.496). 또한 실험군의 HF의 ms²는 653.62±781.60 ms²에서 458.67±308.91 ms²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28, p=.776), 대조군도 537.64±568.35 ms²에서 474.18±577.59 ms²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17, p=.865). 그리고 실험군의 LF/HF Ratio는 2.31±4.10에서 1.35±1.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0.57, p=.570), 대조군도 1.25±1.14에서 1.32±1.09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6, p=.078). 따라서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p> <p>3) 가설 3 :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원 아동 부모는 참여하지 않은 입원 아동 부모보다 부모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부모 양육효능감의 점수는 3.62±.55에서 3.91±.43(z=-2.96, p=.010)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사전 3.28±.49에서 사후 3.30±.45(z=-0.39, p=.702)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양육 효능감에 대한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p> <p>4) 실험군의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프로그램 후 실시한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아이의 입원으로 예민하고 긴장된 마음이 안정됨’, ‘아동을 돌보는 스트레스가 감소’, ‘아이를 대할 때 여유가 생김’, ‘아이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짐’, ‘아이에게 화를 덜 냄’이라고 응답하였다.</p>
결론	결론적으로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 치료 프로그램이 입원아동 부모의 자율신경활성도의 안정적 변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 치료 프로그램 후 부모의 양육 효능감 점수는 높아지고,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낮아져 입원아동 부모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상증강현실 기반 숲 치료 프로그램을 입원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와 양육 효능감 증가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키워드	입원아동부모, 가상증강현실, 숲치료, 양육스트레스, 자율신경활성도, 양육효능감

논문 제목	신규간호사의 그릿, 사회적지지와 재직의도 관계에서 전환충격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지혜영(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그릿, 사회적지지, 재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전환충격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전환충격을 감소시켜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되었다.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G도 C시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1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대상자 수는 17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사후검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회귀분석, Bootstrapping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그릿은 4점 만점에 2.95 ± 0.32 점,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81 ± 0.61 점, 전환충격은 4점 만점에 2.57 ± 0.49 점, 재직의도는 8점 만점에 5.25 ± 1.35 점 이었다. 신규간호사의 재직의도는 그릿($r=.56, p<.001$)과 사회적지지($r=.4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환충격($r=-.56,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충격은 그릿과 재직의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고, 사회적지지와 재직의도의 관계에서도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규간호사의 재직의도 향상을 위한 그릿, 사회적지지를 높이고 전환충격을 감소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간호사의 재직의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중재 전략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신규간호사, 그릿, 사회적지지, 재직의도, 전환충격

논문 제목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한명지(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PA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PA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향후 PA간호사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C시와 J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의 PA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최종 대상자는 152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3년 1월 18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Scheffe test,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모델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A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의 정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45.72 ± 9.77 점, 긍정심리자본은 6점 만점에 3.94 ± 0.62 점, 조직몰입은 5점 만점에 3.09 ± 0.44 점이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절차를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3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5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3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모델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크기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한 결과, 매개효과($B = -.005, 95\%CI = -.009 \sim -.002$)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 대상 PA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A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PA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알아보고 매개효과에 대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

논문 제목	신규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임상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한승주(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무환경과 임상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G도의 J시에 소재한 1개의 상급종합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으며, 최종 144부의 설문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결과	<p>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2.73 ± 0.43점, 임상현장적응은 5점 만점에 3.11 ± 0.37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50 ± 0.28점이었다.</p> <p>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뒤, 간호근무환경과 임상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B=.132$, $95\%CI=.054-.259$)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유의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간호근무환경은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 $p<.001$), 임상현장적응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현장적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 $p<.001$). 간호근무환경에서 임상현장적응 간의 총효과는 $B=.501$($p<.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투입되면서 간호근무환경에서 임상현장적응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B=.368$($p<.001$)으로 감소하여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근무환경에서 임상현장적응 간 경로에서 매개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투입했을 때의 간접효과는 $B=.132$($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근무환경에서 임상현장적응 간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p>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연구 대상인 임상 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임상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병동의 특성에 맞는 사전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구 변수들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신규간호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키워드	신규간호사, 간호근무환경, 임상현장적응, 전문직 자아개념

논문 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도와 수행 경험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허성호(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 수행도를 조사하고, 인간중심간호 수행 경험을 탐색하여 대상들이 실제 인간중심간호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인간중심간호를 수행했던 경험들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60명이었으며, 이 중 인간중심간호 수행도가 높은 간호사 16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연구는 혼합연구 방법(mixed methods design) 중 양적연구를 먼저 실행한 후 질적연구 자료 수집을 통해 양적결과의 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설명적 순차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를 활용하였다(Creswell, 2015). 즉, 양적 자료를 수집한 뒤 정량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1단계로 인간중심간호 수행도를 조사하고 이의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질적 연구 단계에서 탐구해야 할 것을 확인하고 면담 질문을 결정하였다. 다음 2단계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을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심층적인 통찰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도록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인간중심간호 수행도는 3.42점으로 인간중심간호 하위 항목 중 편안함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별성이 2.53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F=4.67, p=.011), 중환자실 경력(F=3.15, p=.027), 중환자실 근무 만족도(F=4.90, p=.009), 동료와의 관계(t=-2.69, p=.008), 직업에 대한 자부심(F=5.61,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최종학력이 석사이상일수록, 중환자실 경력이 5~10년 미만일 때, 중환자실 근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인간중심간호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인간중심간호 수행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12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으며, 이로부터 4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경험에 대한 주제는 '공감적 간호', '존중의 간호', '개별적 간호', 그리고 '전문적 간호'이었다.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인간중심간호, 중환자실 간호사, 간호경험, 혼합연구, 설명적 순차설계

논문 제목	임상간호사의 조직침묵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에 의해 조절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황신애(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침묵, 조직몰입, 조직공정성,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직침묵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조직공정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경상남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및 SPSS PROCESS Macro 4.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직몰입은 조직침묵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침묵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침묵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분배공정성에 의해 조절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임상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침묵을 유발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직몰입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침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의해 완화되므로, 임상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간호인력 관리와 간호 성과 향상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임상간호사, 조직시민행동, 조직침묵, 조직몰입, 조직공정성

논문 제목	요양병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예방관리실무 현황
성명(현재 소속기관명)	황혜진(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학위명(학위취득기관명)	간호학 석사(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CRE 관리지침에 따른 CRE 감염예방관리실무 현황과 CRE 감염예방관리 수행 시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병원에서 CRE 감염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B광역시와 K도 소재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67개소와 해당 기관의 감염관리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손위생, 접촉주의, 침습적 기구 사용 관리,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환경관리, CRE 보균/감염자 및 고위험군 관리, CRE 감시 및 피드백 영역이 포함된 CRE 감염예방관리실무 현황과 실무수행 시 장애요인 등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각 영역별로 손위생 모니터링 등 증진활동 수행 98.5%, 격리실 입구 개인보호구의 비치 95.5%, CRE 환자 영역 주기적 소독 실시 80.6%의 항목의 실무 수행이 높았다. 환자영역 손소독제 비치 62.7%, 매 환자마다 개인보호구 교체 77.6%, 침습적 기구 사용 감시 및 의료관련감시 수행 50.7%, 적정 사용 관리 항생제 목록 지정 25.4%, 항생제 제한 및 관리 시스템 구비 4.5%, 항생제 사용률 통계 분석 7.5%, 입원 시 CRE 고위험요인 확인 59.7%, 입원 중 CRE 발생 시 격리 55.2%, 입원 시 CRE 선별 검사 시행 10.4%, CRE 격리해제 검사 시행 38.8%, CRE 감염감시 수행 29.9%로 실무수행이 미흡하였다. 실무수행 장애요인은 감염관리담당자의 겸임으로 인한 업무과중, 국가차원 CRE 감염관리 지침의 강제성 부족, 외부용역인력(간병인 등)의 감염관리 인식부족, 감염관리담당자의 CRE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정보 및 지식부족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성공적인 CRE 감염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손위생, 접촉주의, CRE 고위험군 선별, CRE 발생감시 등의 다각적인 실무수행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에서 CRE 감염예방관리 실무수행에 대해 각 영역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실무수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관리 자원 지원, 직원 교육, 지속적 모니터링과 국가 차원의 수가체계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요구된다.
키워드	감염예방관리실무, 요양병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경남간호 학위논문 자료집 발간

발간처: 경상남도간호사회 교육위원회

발간인: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발간일: 2024년 5월 21일

편집장: 하영미 교육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편집위원: 구미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적정관리팀장

김정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세영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서연숙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병동간호팀장

신지선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특수간호과장

윤은숙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3호
Tel. 055)262-6006 Fax. 055)262-6098